

집 념

허 노인이 작고한 후 그 뒤처리를 하며, 남은 사람들은 약간의 고소(苦笑)를 금치 못하였다.

노인의 막내딸이 늘 고물상이라고 놀리던 그의 손그릇에는, 문방사우는 물론 돛바늘 송곳 등의 연장에서부터 수도 꼭지 철사 오래기나 사뭇 신창 가죽 나부라기까지 간직되어 있고, 문갑 속에는 수십 년을 두고 모아 온 일기 편지 명함 영수증 같은 것이 차 있었다. 사십년 전에 작고한 노인의 자친의 초종(初終) 때 발기와 조객 명단 부고 조문 등이 노르께하게 변색은 되었을망정 정연하게 쌓여 있기도 하였다.

그것들은 노인이 살아온 자취의 파편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냉정히 판단하여 노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중요 서류를 모아 둔 듯한 손가방 속에도 몇 장의 차용 증서와 예금 통장 외에는 역시 대체환(對替換) 영수증 뭉치 같은 것뿐인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그 말수 없던 조용한 노인의 사람됨을 새삼스러이 안 것 같았다.

평범한 일 노인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이거나 주역(主役)이 된 것이다.

“소화 육년이라면…… 이십 년이 넘었는데 아유——.”

모두들 감탄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어조로 떠들었다. 뜻 없는 사람들은 이 지나친 무익한 진지 속에 오히려 아이러니를 느낀 것이다.

노인의 ‘잡동사니’는 몇 장의 차용 증서와 예금 통장을 빼놓고 전부 한몽테기로 몽쳐졌다. 즉 노인 자신의 유해처럼 말쑥하게 치워져 버린 것이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한 나들이 처는 늘 다니던 우체국이였다. 그는 노인 특유의 되풀이말로 계원을 성가시게 하였다.

계원은 귀찮았는지 앞서 왔을 때보다는 희망적인 말을 했다.

“좀더 기달려 보시이소. 안즉 구체적인 당국의 지시는 없지만 그 래도 차차 정리되믄 찾게 될 겁니더.”

“그럼 며칠 후에 또 한 번 와 보지.”

허 노인은 허약한 음성으로 입속말같이 중얼거리고 창구(窓口)에 서 물러나갔다.

노인이라고 계원의 어조에 어린 약간의 경멸과 역겨움을 깨닫지 못한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속으로 다진다.

땀은 서울서 내려와 살면서부터 이십 년을 두고 단골로 다니는 우체국이지만 요즘같이 자주 온 일은 없다. 따져 보니 노인의 건강이 급속도로 허물어져 갈 때부터인 모양이다.

서울서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대체환으로 돈을 부친 날이 공교롭게도 유월 이십삼일 아침이라 사변통에 그 안타까운 십만 환이 흐지부지가 된 것이 일의 시초이다. 그러나 이 십만 환이 안타까워진 것은 훨씬 나중 가서고, 애초에는 괴뢰군 점령 아래 생사조차 모르는

딸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서울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을 미쳐 쫓아 다녔다. 둘째 아들이 죽을 때 단지까지 한 노인이다. 서울 남아 있는 사람들은 태반이 끊어 죽었다는 소문에 사흘까지 절식도 하여 보았다.

가만있어도 의식에 걱정이 없는 노인이 없는 주변을 억지로 부러 온 것도 모두 이 막내딸의 교육만큼은, 하는 각오에서인데, 그 딸이 죽고 보니 아까운 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딸이 죽지 않고 제법 어른이 되어 돌아오고, 피란 소동으로 뒤숭숭하던 세상도 싸우는 중이나마 그 나름으로 정리가 되고 보니, 노인은 흐지부지된 그 십만 환이 몹시 아쉬웠다. 더구나 딸이 피란은 학교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되자 아까움은 더욱 절실해졌다.

“어쨌든 저것을 가르쳐야 텐데…….”

한푼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사변으로 인한 사무 혼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우체국에서는 노인의 십만 환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 대꾸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법 한 인사로 알아야 했다.

노인은 번번이 노여움과 실망을 안고 헛되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 그렇지 법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허망한 일을 할 리 없지——.”

노인은 혼잣말을 제법 크게 중얼거려 본다. 마치 자기 생각을 다져나 보듯이——

어두운 데서 갑자기 햇빛이 퍼붓듯이 쪼이는 밖에 나온 까닭인지 아찔 현기가 난다. 주위가 자욱하고 시야가 흐릿한 것은 낙역으로 달리는 자동차 먼지 때문인가, 노체의 허약에서인가?

노인은 길목에 머물러 단장으로 몸을 의지하고 허리를 폈다. 품질은 좋으나마 십여 년이나 써 온 테두리가 좁디좁은 중절모, 역시 상품이나 고색이 창연한 양복, 가느다란 다리를 감다시피 한 좁은 바지

아래 십여 년 전에 유행한 끝이 뽕족한 ‘기드’ 구두가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걷기 시작했다. 쉼 새 없이 차가 달리고 보지 못하던 키다리 민군 흥척스러운 흑인들이 건들건들 걸어가기도 하는 아스팔트 길을 더듬어 간다.

“가치로 따져 봐, 사변 전 십만 환이라면——.”

허나 가치 운운을 따질 것 같으면 노인의 유일의 자금이었던 백만 환—— 이것저것을 다 정리하여 마련한 그 끔찍한 백만 환이 이제와 보니 양복 한 벌값밖에 되지 않았다. 그 백만 환을 어물전을 하는 친구에게 주어 매달 일할씩을 따서 서울로 보내곤 했던 것인데——

꿀르——꿀르르——쉐——쉐——

머리 위를 모진 금속음이 떠 간다. 노인은 눈을 들어 본다.

비행기가 십여 대, 아련한 평화색으로 부드럽게 퍼져 있는 공중을 정연히 날고 있다. 어느 각도(角度)에서 햇빛을 반사하는 모양으로 그 십여 대의 날개의 여기저기가 짹짹 찬란하게 눈을 쏜다. 아름답다.

노인은 쳐다보고 있는 중에 일찍이 모르던 충격을 느꼈다. 자기 호흡의 박자가 무섭도록 또렷이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치밀어 온 다음 순간, 시간의 흐름이 급자기 정지되고 알 수 없는 어느 것——영원(永遠)이라고도 할까——그러한 어느 것에 전 존재가 혼흔히 풀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일종의 황홀감이 그를 와쌌다.

“또 손이 왔구료?”

노인의 음성은 끝에 가서 갈라져 기침이 되어 버린다.

“이번에 같이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라나요?”

희끗희끗 살쩍에 민빋질을 곱게 한 마누라는 거북한 듯이 변명조로 말하고

“호두 기름 좀 더 잡숫지?”

하며 문갑 위에 덮어 놓은 종지 뚜껑을 열었다.

앗하하…….

앗하하…….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오호호…… 요망한 젊은 계집의 교소도 섞여 들린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노인은 스스로를 타이르듯 뇌어 본다. 그러나 적요(寂寥)는 더욱 가슴을 파고들었다. 현재의 노인을 좀먹고 있는 것은 병 자체보다도 이 적요일지도 모른다.

벽 양면에 창이 있어, 동창으로는 아침해를 받고 석양에는 잔광(殘光)이 가만하게 황혼을 불러들였다. 뜨는 해 지는 해가 노인에게는 한가지로 서글프다. 아래층의 웃음소리만큼 서글프다.

자기도 알 수 없는 감정이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예감이 가지고 온 절망의 투영(投影)이라고도 할까?

고혈압 위축신(萎縮腎) 심장 판막증 가벼운 늑막염——이것이 노인에게 실려진 병명이다. 이 술한 병들은 그날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쳐다보다가 쓰러진 그 때부터 일시에 터져 나왔다. 마치 간수가 두부를 엉기듯이 그 때의 그 졸도(卒倒)가 그저 쇠약이란 이름 아래 아물거리던 것들을 또렷히 굳힌 것 같았다.

그의 삶이 그러하듯 노인은 투병에 있어서도 겸허하고 참을성 있고 가만하였다. 다만 무료가 그로 하여금 주름 새의 먼지까지 털게끔 하는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들을 둔 노인은 지나치도록 충분한 치료와 간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긴 병이라고 지루해 하는 것은 아니겠지 만, 우환도 수삭을 걸치고 보니 오히려 예사가 되어, 한동안 삼가졌던 주연(酒宴)이 요즘 와서 부쩍 잦았다.

노인의 어버이로서의 심정으로는 이것이 무척 아팠다. 노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매듭을 지었다 다시 풀다. 때로는 차라리 아

들이 늙고 병든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복수적인 자학증에 걸리기까지 한다. 철저한 패륜과 배신과 무도의 희생이 되어 쓰러져 가는 자기를 상상하면 오히려 역설적인 쾌감을 느낀다.

아들이 제 할짓 다 하면서, 효자로서의 균형을 교묘하게 잡아 가는 것에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이다.

칠십 가까운 평생을 자식들을 위하여 걸어왔다고 자처하던 몸이, 삶의 종말에 와서 긴 병으로 본의는 아니면서 자식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천만 심외사다. 사남매 중 하나의 미성년인 막내딸 교육을 부유한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무서운 극기 속에서 감당해 온 것도 이 자부심의 완벽(完璧)을 고집한 까닭이 아닌가?

그 딸을 성취도 시키지 못하고…… 혼수 마련을 하게끔 넉넉하게 남겨 주지도 못하고…….

숨 가쁨이 덜할 때에는 노인은 머리속에서 빈약하나마 유산의 명세서를 꾸며 본다.

제 칼도 남의 칼집에 들면 남의 것이라고, 자기 손으로 마련하여 몇 해를 살던 집도 아들과 합술을 하여 지금 살고 있는 큰집을 살 때 팔아서 보태고 보니, 결국 노인은 집 한 채도 남기지 못한 격이 되고, 옛날에는 끔찍한 금액으로 알았던 것도 통화 팽창으로 우스운 것이 되고 말았다.

“용덕이에게 이십만 환, 구석이에게 십만 환, 통장에 오만이천 환——.”

이렇게 주먹구구로 따져 가는 중엔, 물론 그 유월 이십삼일 아침에 송금한 십만 환도 빠지지 않고 끼어 있었다.

“좀 견게 되면 한번 더 하회를 알아봐야지.”

머리속에서 유산의 명세서를 꾸미면서도, 노인은 다시 외출을 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정원의 모과나무에 아련한 연분홍색 꽃이 필 무렵부터, 노인은 변

소 출입이 어렵게 되었다. 단정하고 깔끔한 노인으로서 방 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타격이 되었다.

영감 못지않게 단정하고 체체한 마누라는 날로 심해 가는 영감의 신경질에 누비 주름이 부쩍 늘었다. 노인은 벽 양면에 창이 있는 육조 다다미방 병실에서, 해 뜨는 바다와 저물어 가는 산을 바라보며 병고와 추억과 비애와 체념과 무력한 노여움과 희망이 얼섞인 울로 부단히 '죽음'을 짜고 있었다.

그 내부에서 복대기는 모든 감정이 거기서 중화나 되어 버린 것처럼, 무표정한 누르딩딩한 뿌석한 얼굴로 노인은 창 밖에 힘없는 시선을 던진다.

산기슭 언덕 위에 언제부터인가 울연히 솟아 있는 교회의 십자가 — 시선은 언제나 거기를 감돈다. 십자가는 흐린 날이면 약간 가까워 보이고, 쾌청한 날이면 썩 물러나 보였다. 그것은 시각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심정에도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것이다.

노인은 우리 나라의 소시민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평생에 종교를 모르고 살아왔다. 사실 서창으로 바라보이는 언덕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요즘 안 일이다.

그러나 죽음이 벽같이 앞을 가린 지금, 그 십자가는 자기의 애절한 심정과 기도의 상징같이 보여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막내딸의 친구가 라일락 가지를 꺾어 들고 문병을 온 일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드나들던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소녀는 위로의 의미로 노래를 불렀다. 그 부른 노래가 찬송가 217장이었던 것이다.

방안에 찬 라일락 향기와 짙은 노랫소리 — 청춘에의 향수가 아프도록 노인의 가슴을 억눌렀다. 그것은 심각하고도 집요(執拗)한 생애의 애착이었다. 노인은 살고 싶었다.

“저것을 끈 맏어 줄 때까지…….”

막내딸의 애릿애릿한 목뒤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강렬한 생체(生體)의 의지가 의무(義務)의 걸차림을 갖추고 쇠락해 가는 육체를 빼 튕기려 하는 것이다.

병세는 일진 일퇴해 가며 서서히 기울어져 갔으나, 소강 상태(小康狀態)라고 볼 수도 있는 며칠이 계속되는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노인은 손그릇을 열어 무엇을 챙기기도 하였다.

어느 날 노인은 묵은 서류 속에서 묵직한 영수증 같은 뭉치를 꺼내었다. 필적은 노인 자신의 것이었으나 먹으로 쓴 것도 있고 잉크로 쓴 것도 있는 그 지편(紙片)들은 오랜 해를 두고 모여진 것이 분명했다. 대체환표 영수증이였다.

영수증의 일부(日付)는 소화 육년 사월 이십일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단정한 모퉁 해서로 적힌 금 오십 원야——이것이 동경으로 유학을 보낸 아들을 위한 최초의 송금액이었다.

그 들기 힘드는 고등 학교에, 단 하나의 아들이 들었을 때의 기쁨이 아련히 다시 되돌아온다. 떠나기 며칠 전부터 발찌가 나서 아파하던 아들의 아직 소년다운 얼굴이 눈에 삼삼하다. ‘극기’를 좌우명(座右銘)으로 하던 노인은 그 아들을 기어이 예정대로 떠나게 하였던 것이었으나…….

노인은 또 몇 장을 넘겨 보았다. 박힌 듯이 같은 금액과 매월 이십 원 전후의 일부들이 계속되다가 소화 팔년에 가서 갑자기 금액이 건 뛰었다. 일금 일백 원야——그렇다, 아들이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다는 급전에 부친 돈이다.

복부 수술이라면 죽는 줄만 알았을 때라, 혼비백산하여 어마지두에 그 단정한 마누라가 치마끈이 풀어지는 것도 모르고, 버선발로 뒷돌에 뛰어내려 알지도 못하는 일문 전보를 뺏어 보던 그 때——마누라는 아직 사십 전의 고운 티가 남아 있는 여인이었다.

송금 금액은 다음달부터 또 오십 원으로 인하되었다가 다음해 가

서 또 백 원으로 뛰었다.

이 백 원이 먼저 백 원과는 다른 용도를 가졌던 것을 노인은 잊지 않고 있었다. 고대하던 대학 입학——그 기쁨을 위하여 벌써부터 여투어 둔 여분의 돈이었던 것이다.

달을 거른 일부가 종종 있다.

소화 십년 삼월——직장에서 일본 시찰을 보내 주었던 때인 모양이다. 타항에서 보는 아들은 역의 잡담(雜談)에 섞여 사뭇 어리고 서툴러 보였던 것이 기억에 남았는데, 단장을 들고 나비 넥타이를 맨 자기를 아들이 축스럽다고 생각한 것은 노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또 한 번 일은 기억에서 떨어져 버린 일이다. 아니 치부(恥部)를 감추듯, 애써 덮어 둔 일이다.

장인이 돌아갔을 때였다.

어느 날 밤 찢덕찢덕한 후텋 바람이 심히 불었다. 장인 초종을 치른 후 우선 자기만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연일의 피로와 불면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상한 밤이었다. 보름경이라 전체에 얽은 구름을 입은 하늘은 불꽃을 덮은 연기같이 자욱한데 그 구름 위를 더욱 무겁고 검은 구름이 바람에 쫓겨 달리고 있었다. 천둥이 울리고 간혹 날카로운 번개의 섬광이 불길한 하늘을 두 개로 찢었다.

노인은 변의(便意)를 느껴 잠방이 바람으로 뜰아래에 내려섰다. 변소로 가려면 아래채를 거쳐야 했다. 그 아래채에 정아가 혼자 자고 있었던 것이다.

열일곱 나는 정아는 바느질 품을 파는 홀어머니와 전차 차장을 다니는 오라비하고 그 아래채에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텅 비인 위체에 올라가 자는 모양이고, 오라비는 숙직인지 보이지 않았다. 정아는 수를 놓다가 잠이 들었는지 무릎에 수틀을 놓은 채 재봉틀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그 훗일은 자기도 모른 새에 되어진 일이다.

점잖기로 소문난 노인의 그날 밤의 실수는, 전차 차장을 다니는 그 불황한 오라비의 무서운 협박을 간단없이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노인은 얼마나 그날 밤 일을 뉘우쳤던 것인가! 그러나 그 뉘우침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것이었다. 즉 그는 자기의 행동에 가책을 느꼈다기보다, 상상 외의 괴로운 결과 때문에 스스로 이마를 찡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넉넉지 못한 봉급만으로는 아들에의 송금조차 여의치 못했다.

노인은 보아서 안 될 것이나 본 것처럼 얼른 몇 장을 또 넘겼다.

금액이 늘어 있다. 씹씹이도 늘긴 하였겠지만, 그것에는 노인의 속죄적인 심리가 깃들어 있음에 틀림없었다.

이리하여 수십 매의 영수증은 노인에게 있어서 추억에의 색인(索引)이 되었다. 그 한장 한장은 기억의 어둠 속에 던져지는 작은 등불이었다. 그것은 노인의 생활의 지주였고 가볍지 않은 짐인 동시에 그 생활의 탄력(彈力)이기도 하였다.

노인은 그 칠 년 동안을 통해 앓은 기억이 없다. 병이 잦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취직을 한 후부터다.

이윽고 부자의 입장이 서서히 역전(逆轉)되어 갔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쾌청한 하늘 아래 반짝이는 십자가는 쇠퇴한 노인의 시력으로는 붙들 수가 없었다.

노인은 영수증을 전과 같이 묶어 놓고 손가방을 뒤졌다.

새로운 뭉치가 나왔다. 막내딸을 위하여 다시 시작된 대체환 송금 표였다. 용어가 우리말이다. 금액도 먼저 것에 비하면 경이적이다. 늙어 은퇴하고 있는 노인에게는 겨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인의 최후의 등불이기도 하였다. 이렇다 할 정수입이 없는 노인이 이 송금을 위하여 얼마만한 희생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늙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고 굳것질을 하고 싶

은 때도 없지는 않았고, 늙은 친구들과 술을 들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은 그저 꺾 눌러 왔던 것이다.

한 달도 거름 없는 이 송금은 노인의 슬픈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남음이 있었다.

무자생인 노인은 사춘기에 들어 개화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이윽고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의 이 개화 사상은 평생을 통하여 그의 등뼈(背骨)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 종교보다도 강렬한 정신의 양식인 희생과 극기를 오히려 향락해 왔다고 할 수도 있었다.

“너무 오래 앉아 기시면 또 혈압이 높아지실 텐데.”

마누라가 과일즙을 가지고 올라와 걱정스러운 듯이 눈썹을 모았다.

“.....”

들리지 않았는지 대답이 없는 노인은 아까부터 한 장의 영수증을 든 채 있다.

그 유월 이십삼일날 부친 십만 환의 송금 전표다.

“신청을 해야지.”

그는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언젠가 신문 광고에 사변으로 인한 채신 사무의 혼란에 대한 조치가 나왔던 것을 본 것 같았다.

“잉크 좀 올려다 주우.”

“네?”

마누라는 채 알아듣지를 못했다.

“잉크 말이야.”

노인은 소리를 꺾 질렀다. 마누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영감을 쳐다보다가 그래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졸자의(拙者儀) 4283년 6월 23일 대체환 번호 1203호로 금 십만 환야를 서울로 송금하였던바 사변으로 인하여.....

영감은 흠어지려는 사고력을 필사적으로 주워담으며 신청문을 엮

어 갔다.

우편환표 영수증을 합쳐 제출하오니 선처 양망이옵니다…….

마누라가 잉크와 펜을 가지고 올라왔다.

영감은 두꺼운 옛날 패지를 꺼내 놓고 펜에 잉크를 찍었다.

줄자의 —— 손이 떨린다. 어린아이 글씨 모양으로 획이 흩어져 괴상하다. 그러나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한자 한자를 써 내려갔다. 진땀이 이마에 방울져 솟았다.

“무엇인지 아이들 시키시지.”

마누라가 보다못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영감은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끝까지 써 마치고 이윽고 더욱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것 보, 마누라. 이걸 말이야 우편국에 가지구 가서 말이야 ——.”

마누라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안색이 질리며

“영감!”

찢어지는 소리로 외치고 남편의 몸을 떠받쳤다. 영감의 말이 허 말린 소리로 들린 다음 순간, 무거운 나무토막처럼 그 몸이 쓰러져 갔기 때문이다.

영감은 그 후 열흘을 더 살았으나 덮고 있는 것이 무거운 흙이 아니라는 점 이외에는 이미 주검과 진배없었다.

(1954. 3. 10.)